

SMDE타입 온도 보상형 수정발진기 국내 첫 양산 고니정밀

고니정밀(대표 신현욱)이 휴대 폰·TRS 등 이동통신시스템 및 초 소형 통신단말기의 PLL회로단에 주력 채용되는 표면실장(SMD)타입 온도보상형 수정발진기(TCXO)를 국내 처음으로 오는 9월부터 양산한다.

지난해 하반기 SMD타입 TCXO 시제품 개발에 성공, 그동안 양산을 추진해온 고니정밀은 인천 부평공장에 8월말까지 월 2만개 생산능력의 전용라인을 구축, 9월부터는 본격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라 최근 라인구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니는 SMD타입 TCXO가 양산되는 대로 수출에 주력기로 하고 미국의 수정디바이스 판매전문 협력업체인 사로닉스사를 통해 월 1만개 정도의 공급량을 확보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싱가포르·독일 등에 자체 모델 및 OEM 수출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니가 양산할 제품은 온도변화에 따른 최대 주파수편차가 2PPM 급의 고정밀 TCXO로 사용환경이 자주 변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적합하며, SMD타입으로 설계돼 초

소형기기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프랑스에 브라운관 공장 준공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지난 6월 13일(현지시간) 프랑스에 자본금 2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억 2,700만 달러를 투입, 컬러 브라운관 공장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대우전자 배순훈 회장과 양재열 사장, 오리온전기 엄길용 사장 등 대우그룹 관계자들과 프랑스 장클로드 고맹 국토개발청 장관, 이시영 주 프랑스 대사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우전자와 오리온전기가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합작한 이번 프랑스 컬러브라운관 공장은 유럽 중심부인 로렌 근교 유럽연합(EU) 경제부흥지역인 마틴 스트리트 3

만 1,000평 부지에 건평 7,300평 규모로 건설돼 14인치 및 20인치·21인치 등의 중소형 컬러 브라운관을 연간 130만개를 생산하게 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라운관의 50%는 프랑스와 폴란드의 대우전자 현지 TV공장 수요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유럽지역 TV생산업체에 공급하게 되는데, 앞으로 25인치·28인치 등 대형 제품은 물론 광폭TV용 브라운관도 생산할 계획이다.

대우는 이 공장의 자동화율을 높이고 5교대 근무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생산체제로 운영, 생산능력을 연간 200만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대우전자의 유럽지역 TV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대비, 연간 200만개 규모의 라인을 추가로 증설, 98년부터 연간 400만개 이상의 컬러 브라운관을 생산하는 유럽지역 최대 규모의 컬러 브라운관 공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식기세척기 출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40만원대 한국형 식기세척기 「프리타임」(모델명 DDW-500)을 출시하고 식기세척기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대우전자는 이 식기세척기에 급수와 배수기능을 일체화한 투웨이 펌프와 강력모터를 채용, 오목한 공기그릇이나 주발 등을 사용하는 한국의 식생활문화에 적합하도록 설계했으며 세제 및 세척시간 절감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 다양한 세척프로그램을 채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간절약과 관련해 보통 70여분이 걸리는 표준코스 외에 절약코스를 채용해 세척시간을 20여분대로 단축하면서 소비전력을 30%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일세척 및 건조기 전용 기능도 갖췄다.

칠레법인 새 사옥 준공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200만불을 투자해 칠레에 판매법인 사옥과 물류센터를 건설, 이 지역 브랜드세일을 강화한다.

대우전자가 지난 '93년말 칠레의 식도코퍼그룹(SIGDO KOPPER GROU)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칠레 판매법인은 '94년 2천만불을 시작으로 '95년 3,700만불, 올해는 6,000만불을 목표로 하는 등 매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산티아고 공항 인근지역에 자체 창고를 갖춘 건평 약 1천평(3,000㎡)규모의 새 사옥을 건설했다.

이와함께 북부 항구도시인 이끼계(IQUIQUE) 지역에 별도의 물류센터를 확보, 칠레 북부 및 페루 남부지역, 볼리비아를 대상으로 한 판매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신사옥과 물류센터 건설로 칠레 전역 및 인근 남미국가들을 커버할 수 있는 판매거점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지역 브랜드세일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3년간 1,500만불을 투자해 기업 이미지 광고 및 제품광고에 주력하는 등 고급브랜드 이미지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 첨단기술연구소 본격 가동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일본 후쿠오카에 첨단기술연구소(DER

EC Fukuoka : Daewoo Electronic Research in Fukuoka)를 설립,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세계 가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최고급시장으로서의 일본시장 내에서 현재의 신속한 정보입수와 기술교류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가전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 고유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이 연구소는 △컴퓨터 영상처리 장치, △컴퓨터 비전, △디지털 방송 장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맥의 흐름에 따른 번역 알고리즘을 갖춘 일한 자동 번역 시스템, △물체의 움직임을 시공간적으로 기록하는 모션 추적 장치 등 첨단 멀티미디어 제품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일본 유수의 기업들과 학회와 세미나를 통한 정보 교류 및 대학과의 산학협동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우전자는 일차로 50억원을 투자하고 본사 연구원 파견 및 현지 엔지니어를 채용, 10여명의 연구인력 구성작업을 완료했으며 향후 2000년까지는 200억원 이상의 연구 투자와 함께 현지인 포함, 60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연구분야를 디지털영상, 인공지능, 입체 텔레비전, 가상현실 등으로 확대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한일 공동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면서 양국의 기술교류에도 일익

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콜롬비아 판매법인

설립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자본금 100만달러를 단독으로 투자하여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BOGOTA)시에 콜롬비아 판매법인 (DECO : DAEWOO ELECTRONICS COLOMBIA LTDA)를 설립, 칼라TV, VCR,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과 카오디오, 전자렌지, 진공청소기 등 생활 용품을 대우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판매법인은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올해 2천만불을 시작으로 98년에는 6천만불 이상을 판매, 현지 시장점유율 2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판매촉진과 브랜드 세일 확대를 위해 보고타 시내에 1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상설전 시장을 설치하고 영업소와 현지 본사에 A/S 사무실을 운용하며 첨단 A/S장비 설치한 서비스 센터를 40개 이상 설치하는 등 A/S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입간판,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와 신문, 잡지광고를 통한 기업 이미지 및 제품광고에 주력할 계획인데 현재 인근 지역인 멕시코, 엘살바도르, 베네주엘라 등에 이미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에 '정보통신 SW

센터' 설립

대우통신

대우통신이 인도에 대규모 정보통신용 SW분야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다.

대우통신은 최근 인도 뉴델리에 총 200만 달러를 단독 투자, 교환기·이동통신·무선통신 등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법인인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우통신의 인도 현지 연구법인 설립은 인도의 질 좋고 값싼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활용, 차세대 통신시스템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50여명의 현지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될 연구개발센터는 앞으로 차세대 통신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비동기전송모드(ATM)교환기를 비롯, 통신망 관리시스템, 차세대 지능망(AIN),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 무선가입자망(WLL),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등에 관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PC 새 주력 모델 공급

대우통신



대우통신(대표 유기범)은 데스크톱PC 및 노트북PC사업의 주력 모델이 될 신제품을 개발, 내달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우통신이 노트북PC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데스크톱분야의 사업강화를 위해 이번에 내놓을 「윈프로 펜티엄(모델명 CPC-5640시리즈)」은 펜티엄 150 및 166MHz CPU와 2GB의 HDD, 8배속 CD롬 드라이브 등을 기본으로 내장한 초고성능 제품이다.

대우통신은 이 제품이 CAD/CAM 등 전문분야의 작업은 물론 네트워크 서버로 사용이 가능하며 다온사이징을 구축하는 데도 최적이라고 밝혔다.

대우통신이 PC 관련 전제품의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윈프로 펜티엄」과 함께 펜티엄급 노트북 PC인 「글로리아 CD」, 펜티엄 프로칩을 탑재한 PC서버도 출시, PC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인텔사와 인터넷

사업 제휴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와 미국의 인텔사가 전략적으로 제휴, 국내에서 케이블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사업 등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추진한다.

삼보컴퓨터는 인텔의 인터넷 및 통신그룹(ICG)과 국내에서 인터넷과 관련한 고속통신사업분야에서 상호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회사가 협력키로 한 분야는 고속의 케이블 모뎀으로 케이블 TV망을 통한 고속 인터넷접속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홈인터넷티브PC 등을 포괄하는 홈네트비즈니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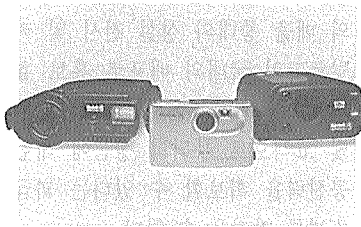
이 서비스는 지역 케이블TV사의 케이블과 연결한 뒤 이 선을 스플리터를 통해 케이블모뎀과 TV를 이어주면 케이블방송과 케이블모뎀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텔이 개발한 케이블 TV모뎀은 10Mbps급의 속도(28.8Kbps급 모뎀의 배)를 낼 수 있으며 하반기쯤 30Mbps급 속도의 상용제품이 시판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전화비 등의 통신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고 삼보컴퓨터측은 설명했다.

삼보컴퓨터는 국내에서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가 법적으로 불가능해 법 개정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일단 준비작업만을 추진키로 했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위한 본격 PC용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시판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가 코닥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필름이 필요없는 카메라인 디지털 카메라를 6월 중순부터 시판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디지털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처럼 촬영이 쉽고, PC에 연결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삼보가 출시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전문가용인 DC40, DC50과 일반 개인용인 DC20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콤팩트 사이즈의 DC20은 홈PC 사용자들을 위한 40만원대의 저가형으로 이미지 공유 및 이미지의 수정 가공 출력이 가능, PC에서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촬영된 이미지를 JPEG, MPG, PICT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이미지 포맷으로 PC에 저장할 수도 있다.

전문가용인 DC50과 DC40은

그래픽,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 전문사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최적의 제3품으로, DC20이 갖는 특징점 뿐만 아니라 구동소프트웨어, 접속케이블, 건전지 등이 본체에 내장되어 있어 구입 즉시 촬영 보존 가공 및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다.

컴퓨터에 적합하도록 특수설계된 756×504픽셀 해상도의 컴퓨터용 CCD(전자결합소자)의 탑재로 비디오용 CCD를 사용하는 다른 카메라보다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DC50은 3배 줌기능과 접사촬영시 자동초점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다.

DC40은 메모리 4메가를 내장하여 스냅모드로 99매까지 본체 저장이 가능하며, DC50은 1메가 내장 메모리 외에도 착탈식 PCMCIA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 메모리 확장이 가능하다.

트라이젼 드림시스, 드림북 시리즈 우수산업디자인 마크 획득

삼보컴퓨터

통산산업부가 주최하고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이 주관한 우수산업디자인 공모전에서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의 멀티미디어 PC

인 트라이젼 드림시스와 멀티미디어 노트북인 드림북 시리즈가 우수산업디자인 마크(Good Design Mark)에 선정되었다.

국내 최초로 PC에서 화상통신 기능을 실현한 트라이젼 드림시스 시리즈는 미니타워형으로 기존의 밋밋한 모양에서 벗어나 패널 전면을 감각적으로 디자인했다. 특히 리모콘 송수신, 볼륨 조절, 마이크 포트 등을 재배치하는 한편 플로피, CD롬 드라이브 외관을 부드럽게 처리했다.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선정제도는 국내외에서 상품화된 공산품 가운데서 상품의 기능, 안정성, 품질 사용상의 편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가치 및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리적으로 최적하게 조화된 상품을 선정, 장려

하는 제도이다. 일반 소비자 및 생산 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산업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상품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이다.

GD Mark 획득은 인증된 상품의 매출 증대와 상설 전시 및 카탈로그의 국내외 배포로 홍보 효과 증대 그리고 대외 이미지 고양 및 고객으로 부터의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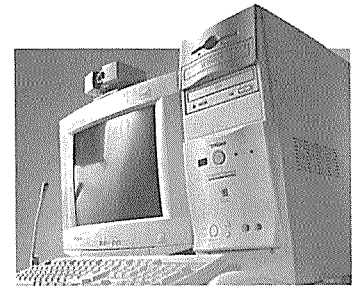
또한 선정상품에 대한 우대사항으로는 정부기관 및 각 단체에서 물품 구입시 GD Mark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우수산업디자인상품 표

지의 사용할 뿐만 아니라 통상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 선진화업체 선정시 평가점수에 반영된다.

날로 기능이 다양해 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PC는 그 성능이나 기능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 아래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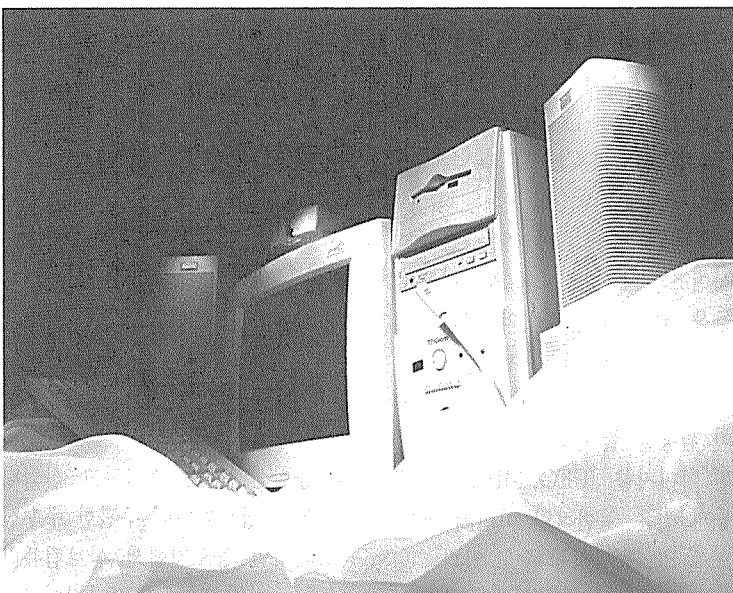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3D 게임, 3D 사운드, CCFE, T.T.S 기능 내장한 트라이젼 드림시스 II 발표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는 국내 최초로 3D 게임과 3D 사운드, CCFE, T.T.S 등 신기술을 대거 내장한 고성능 멀티미디어인 트라이젼 드림시스 II를 발표하고 오는 시판에 들어간다.

드림시스 II의 주력기종인 T750은 펜티엄 166MHz에 기본 메모리 32MB, 하드디스크 2GB,



캐시 256KB를 장착한 하이엔드 기종으로 기존의 2차원 VGA 카드 대신 삼보 기술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한 VGA/SW MPEG/TV 수신/3D 그래픽 가속기/비디오 오버레이 통합보드(PCI 버스)를 내장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외에 16비트 3차원 SRS 사운드카드와 기본 캡션기능 외에 외국어공부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최신 캡션규격의 CCFE(Closed Caption For Education) S/W와 컴퓨터가 문자로 쓰여진 데이터를 읽고 음성으로 일정관리와 메시지를 전해주는 T.T.S(Text To Sound) 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다.

세가지 모델이 출시된 드림시스 II의 기본사양은 펜티엄 133/150/166MHz에 기본메모리 16~32MB, 비디오메모리 2MB(4MB 확장 가능), 하드디스크 1.2~2GB, 캐시메모리 256KB 등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영상 면에서 ATI사의 그래픽칩을 이용해 별도의 3D H/W 없이 3차원 그래픽을 고속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실감나는 3D 게임과 액티브한 인터넷 접속에 유용하다. 현재는 주로 3D 게임에 이용되나 향후 출시되는 대다수의 그래픽, CAD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웹브라우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림시스 II에 채택한 다기능 멀티미디어 보드는 삼보 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ATI

그래픽칩을 사용해 3D 그래픽 가속기능과 S/W MPEG을 지원하고 비디오코더와 TV튜너를 이용해 TV수신 및 외부 비디오 오버레이 기능을 지원한다. 또 비디오 오버레이시 외부 오디오 입력도 지원되고 정지영상 및 동영상 캡처도 지원한다. 윈도우95 환경 아래서 P&P를 지원하는 다기능 멀티미디어 보드는 EDO DRAM을 2MB 내장하고 1280×1024×256의 화상을 지원한다.

기술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한 P&P 기반의 16비트 SRS(Sound Retrieval System) 사운드 카드는 OPL-3 및 웨이브테이블, 3D 효과를 지원하고, 오디오 기능과 관계되는 어드레스, IRQ, DMA 등이 P&P 기능으로 자동 세팅된다. 또한 3D 오디오 기술을 적용하여 녹음된 소리정보 중의 음원 정보를 복원해 원래의 3차원 소리와 가상의 효과음 등 향상된 신호를 스피커로 재생한다.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와 1MB의 파형음을 자체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미디음원 모듈의 추가 없이도 고품질의 악기음을 낸다.

PC 화상통신을 지원하는 드림시스는 28,800 DSVD 팩스모뎀을 기본으로 하고 비디오 전송표준규약인 H.261을 지원해 기존 JPEG 전송방식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빠른 화상(초당 4~5 프레임)을 상대에 전달할 수 있다. 또 화상전화를 하면서 공용의 화면의 전자

철판으로 바로 들어가 음성으로 표현 못하는 문자 메시지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직접 파일을 전송한다.

PCS 핵심부품 개발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의 PCS(개인휴대통신) 단말기용 핵심부품인 VCO(전압제어발진기)와 VC-TCXO(전압제어 온도보상 크리스털 발진기)를 개발, 다음달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VCO가 음성신호를 실어보내는 반송파(Carrierfrequency)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번에 1.8GHz(기가헤르츠)대역의 송수신용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 VC-TCXO는 온도변화에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 혼선없이 안정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부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들 제품이 SMD(표면실장부품)타입으로 설계돼 PCS단말기를 경박단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VCO와 VC-TCXO를 하나의 부품으로 모듈화한 고주파 유닛을 비롯 △송수신 주파수분리기(Duplexer) △표면탄성파필터(SAWFilter) △전력증폭기(PAM) 등 PCS단말기 핵심부품 전체를 올 연말 까지 개발,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 DEC사와 알파칩 기술 제휴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미 DEC와 손잡고 마이크로프로세서(MPU) 시장에 본격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일변도의 생산구조에서 탈피, 균형적인 반도체 사업을 전개하고 PC 및 중대형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자체생산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DEC와 제휴, 내년 말부터 64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본격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이운우 반도체 총괄 사장과 DEC의 밥 팔머 회장은 이날 DEC의 64비트 알파(Alpha)칩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적 기술제휴를 체결했다. 삼성은 이에 따라 알파칩을 내년부터 세계 전 지역에서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DEC는 삼성의 앞선 메모리공정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알파칩은 윈도NT에서 동작되는 명령축약형(RISC)설계구조를 지닌 중대형 컴퓨터용 CPU로 처리속도가 최고 초당 400MHZ에 이르는 등 현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가운데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ISC칩은 현재 워크스테이션

에 주력 채용되고 있으나 PC의 고성능화 추세에 힘입어 내년부터 고급기종을 시작으로 데스크톱PC에 본격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회로선폭 0.35미크론의 최첨단 다층배선구조 공정을 이용해 기흥공장에서 내년말부터 알파칩을 생산하는 한편 98년부터 통신용기기 및 각종 멀티미디어 응용 ASIC에도 이 기술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97년 TFT LCD 모니터 생산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소자(TFT LCD) 모니터를 생산한다.

세계 최대의 모니터 공급업체인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내년부터 14인치 및 15인치급 TFT LCD를 채용한 모니터를 상품화, 이를 세계시장에 시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VGA 및 XGA급 14인치 및 15인치 TFT LCD 모듈 4종을 올해 안에 개발완료하고 기흥공장에 신축중인 제2기 라인에서 양산해 삼성전관에서 모니터로 조립, 싱크마스터 브랜드로 국내외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인치 및 15인치급 액정모니터는 실화면의 크기가 각각 17인치 및 19인치 브라운관 모니터에

맞먹는 대형 제품으로 브라운관 모니터에 비해 두께는 40%, 무게는 30%에 불과해 공간활용도가 뛰어나고 유해전자파를 발생하지 않는 점이 장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4년 8월 VGA급 14.2인치 TFT LCD를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22인치 TFT LCD 모듈 개발에 성공하는 등 TFT LCD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활용 노트북용 12.1인치 모듈에 이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14인치급 이상 모니터용 대면적 TFT LCD 모듈과 이를 채용한 액정모니터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액정모니터 초기시장을 본격 공략, 브라운관 모니터에서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카드용 칩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롯데호텔에서 스마트카드 제품 발표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스마트 카드용 칩(마이크로컨트롤러)과 칩운용체계(COS)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 카드용 칩(모델명 KS88C9210)은 10kB(킬로바이트)의 프로그램 메모리(롬)와 8kB 데이터메모리(EEP롬)를 갖는 단일 칩 CMOS 마이크로컨트롤러로 EEP롬의 용량이 외

국제품 수준으로 크고 쓰기 및 지우기 시간이 5밀리초로 빠르며 최대 32바이트 단위로 한꺼번에 묶어 쓰기·지우기를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입력정보를 10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기능과 해킹차단기능 등 정보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칩과 단말기간의 통신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 프로그래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최대 3만 8,400bps까지 고속통신이 가능토록 했다.

삼성전자는 약 3년전 8kB의 프로그램메모리 칩을 개발, 그동안 그룹내 ID카드용으로 시범 적용해 오다 이번에 버전업된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 제품을 IC 카드 제조업체들에 샘플출하, 빠르면 3·4분기부터 본격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16kB급 스마트 카드용 칩도 내년 초까지 개발, 출시할 예정이다.

CD-ROM 드라이브 모터 제어용 주문형 반도체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CD롬 드라이브의 모터 제어용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제품은 디스크에 입력된 정보를 찾아 움직이는

모터를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주문형 반도체다.

삼성은 트랜지스터 저항 등 각종 개별소자를 묶어 하나의 칩으로 제조, 기존제품보다 부품수를 70%가량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CD롬의 속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차세대 제품인 DVDP(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에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올 하반기부터 이 제품을 장착한 8배속 CD롬 드라이브를 월 40만개씩 양산할 방침이다.

차세대 CCD 카메라 개발

삼성항공

삼성항공(대표 이대원)은 13일 이스라엘 아이사이트(I-SIGHT)사와 공동으로 역광보정기능과 동작검출기능 등을 갖춘 200만원대의 차세대 감시용 CCD 카메라(모델명 SHC-410NAD)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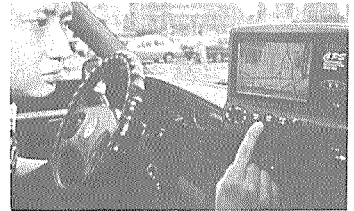
지난해 7월부터 총개발비 5억 원을 투입,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햇빛이나 밝은 빛을 등진 역광상태에서도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역광 보정기능과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경도가 울리는 동작검출기능을 갖추고 있어 역광발생으로 인해 인물의 확인이 어려웠던 금융회사의 감시카메라와 수면반사가 심한 해안지역의 감시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항공은 이 제품개발로 연간 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량 자동항법 장치 개발

쌍용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대표 김용서)이 차량 자동항법용 전국 전자지도를 독자 개발, 차량 자동항법시스템(CNS) 상용화에 나선다.

쌍용정보통신은 지난해 6월부터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그동안 축적해온 지리정보시스템(GIS)분야의 특화된 기술을 이용해 CNS 상용화에 필수적인 전자지도를 내장한 CNS 장비를 독자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쌍용이 개발한 CNS 장비에는 전국을 10만대 1의 축적으로 그린 기본지도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대 광역시를 1만대 1의 축적으로 표시한 전자지도와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의 위치를 50만대 1의 축적으로 표시한 지도 등 모두 7단

계 축척의 운전안내 지도를 CD 롬으로 내장하고 있다.

또한 나레이동통신이 무선호출기를 통해 송신하는 각 지역 정체·사고·도로공사·날씨 등 각종 교통정보를 수신해 모니터에 문자형식으로 제시, 운전자에게 이들 교통정보를 감안한 최적 주행로를 5개까지 복수탐색하면서 우회로 등을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광폭TV 2종 출시

아남전자

아남전자(대표 조석구)는 다양한 멀티미디어형 기능을 채용한 32인치 광폭TV(모델명 WK-3265)를 비롯해 올 하반기중으로 모두 4개의 광폭TV모델을 선보인다.

아남전자는 10일 롯데호텔에서 가진 제품 발표회 및 기자회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계기로 광폭TV시장 공략을 한결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보인 32인치 광폭TV에는 일본 내셔널의 광폭 브라운관을 채용했고 디지털 컴퓨터와 더블 수직윤곽 보정회로를 채용하는 등 화질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PC신호 전용 연결단자와 멀티미디어 모드를 채용, PC와 호환해 게임과 비디오CD·인터넷을 즐길 수 있고 화면을 2개에서 16개로 나누는 멀티윈도 기능과

15초 동안 지나간 화면을 다시 검색할 수 있는 리플레이기능, 16화면 연속동작 등 첨단 멀티미디어형 기능도 갖췄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판할 계획인데, 올 가을 28인치 제품과 리플레이기능을 강화한 28인치 및 32인치 후속제품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아남전자는 또 이날 마쓰시타전기과 공동개발한 47인치 프로젝션형 광폭 TV(TC-47WG25F)도 선보였는데, 애틀랜타올림픽에 맞춰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을 올 하반기까지 마쓰시타로부터 수입·판매하고 내년부터는 직접 생산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에 리드프레임 합작공장 설립

아남반도체기술

아남반도체기술(대표 김 무)은 자사의 우수한 리드프레임 제조 기술을 이용, 현지기업인 NIAGA사(NIAGALIMA SDN BHD)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에 에치드 리드프레임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리전트 호텔에서 진행된 조인식 석상에는 아남반도체기술의 김 무 사장과 NIAGA사의 대표인 다토

카마루딘씨 외에도 다토시디 라피다 아지즈 말레이시아 상공장관, 정경일 현지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은 리드프레임 부문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으며, 금번 투자액은 초기자본금 1,600만불의 40%에 해당하는 640만불이다.

NIAGA사는 산업기술용 플라스크 관련제품 및 반도체 조립 관련 장비 제조 전문회사로, 아남반도체기술과 ACQUTEK ELECTRONICS SDN BHD라는 공동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3LINES의 공장 설치작업에 들어가 97년 상반기 부터는 QFP 208 리드 기준 월 6,000K의 에치드 리드프레임을 생산하게 된다.

아남반도체기술의 리드프레임 해외 합작공장 설립은 올 초 대만 CHINFON 그룹과 공동으로 대만내 리드프레임 생산회사인 CHINFON S&T를 설립한데 이은 두번째로서, 현재 대만 공장은 생산라인 설치를 위한 장비동관을 끝내고 금년 11월경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남반도체기술이 합작법인 설립과 더불어 대만 및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게 되는 에치드 리드프레임 제조장비는 순수자체기술로 개발한 신개념의 전자동 일관공정 제조장비로서, 금년 상반기에 ISO 9002 인증획득 및 IR52장영실상

을 수상한 바 있다.

아남반도체기술은 향후 다핀 QFP와 Matrix 리드프레임 등을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 현지의 반도체 조립산업에 “Fast turn”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남아 리드프레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게 되었다.

2차 전지사업 추진

SKC

(주)SKC(대표 장용균)가 2차 전지 사업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SKC는 그동안 필름 및 테이프 등의 사업에서 축적된 자기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2차전지 사업에 참여 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사업 개발팀을 새로 구성, 2차전지 사업진출을 위한 마케팅에 나서는 한편 2차전지 관련기술 및 생산 시설 도입을 위해 일본 등 외국 2차전지 업체와 활발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SKC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차전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니켈수소전지보다는 리튬이온 전지쪽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사는 2차 전지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기코팅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모든 기술을 외국업체로부터 도입해야 하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2차전지 사업

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는 양극소재와 음극소재를 적층해서 말거나 적층한 것을 그대로 절단해 제조하는데 양극소재와 음극소재 사이의 절연을 위해서는 고도의 자기코팅 기술이 필요하다.

TV제어용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 본격 양산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문정환)는 세계 모든 방송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TV제어용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마이컴)를 국산화, 이달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LG반도체와 LG전자가 공동으로 연구해 제품기능 및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GMS 84512」는 NTSC·PAL·SECAM 등 세계 모든 방송방식에 적용 가능하며 화면문자표시(OSD)기능을 통해 영어·러시아어 및 복잡한 한자까지도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 테트리스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다양한 타이머 기능, 채널선국 및 신호조정용 변조기능, 아날로그·디지털 전환기능 등을 내장하고 있으며 롬(ROM)버전제품뿐 아니라 고객의 사용 및 개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OTP(One Time Programmable)제품의 공급도 가능하다.

그동안 고성능 TV제어용 마이컴은 대부분 미·일 등지에서 수입해 왔는데 이번 LG의 본격 양산으로 연간 6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물론 세계시장 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LG측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제록스사와

프린터 합작 생산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가 세계 최대의 사무기기업체 중 하나인 미 제록스사와 합작법인을 설립, 이르면 다음달부터 잉크젯프린터의 생산에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제록스사와 경기도 평택소재 LG전자 공장내에 자본금 4백만 달러를 투입해 잉크젯프린터 전문업체인 「(주)GS제록스」사를 설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GS제록스의 합작비율은 LG전자가 40%, 제록스가 60%이나 경영은 LG전자에서 맡게 되며, 초대 사장으로는 LG전자의 송광석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합작사 설립에 관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LG전자는 이달 말까지 GS제록스의 설립을

마친 후 제록스사로 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곧바로 프린터 엔진과 완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타업체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잉크젯프린터 사업을 벌여왔던 LG전자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첨단 메커니즘 기술로 평가되는 잉크젯 헤드 기술과 프린터 생산기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돼 세계 프린터업체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제록스는 자체 생산시설은 갖지 않고 경기도 평택소재 LG전자 내 프린터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전량 위탁생산할 계획이며, 생산된 잉크젯프린터는 제록스 및 LG전자에 OEM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또 GS제록스 자체 브랜드로도 제품을 생산, 내수판매는 물론 수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번 GS제록스의 설립으로 제록스로부터 잉크젯프린터 핵심부품인 헤드생산기술 등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잉크젯프린터 부품의 자체개발과 함께 잉크젯프린터의 양산에 돌입, 오는 2000년까지 세계5대 잉크젯프린터 생산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17인치 PC용 모니터

개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는 고급 PC용 17인치 모니터인 「하이싱크」 2개 기종을 개발,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모니터는 고해상도의 「하이싱크17XR」 「하이싱크17XH」 등 2종으로 화소간 간격도 각각 0.26mm와 0.28mm로 줄여 화상의 정밀도를 높였다.

특히 모니터의 일반적인 주사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는 순차주사방식(NI)을 채택해 천연색에 가까운 색을 지원하고 화면의 깜박거림을 크게 줄인 게 특징이다.

또 모니터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줄이고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유해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의 표면을 특수 코팅 했으며 다이내믹 포커스 기술을 채용, 대형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중앙과 외곽의 화질차이를 극복했다.

이와 함께 PnP와 디스플레이 데이터 채널(DDC)기능을 채택, 전원만 꽂으면 모니터의 신호에 따라 PC가 모니터 화면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보자라도 쉽게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보급형 모니터 CDT

개발

LG전자

LG전자는 움직이는 화면을 자

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보급형 17인치 모니터용 브라운관(CDT)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LG는 이 제품이 주사선간의 간섭을 배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브라운관 표면을 특수 코팅 처리해 정전기 발생이 대폭 줄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17인치 제품이 주사선간의 간격을 0.28mm로 좁게 만드는 것과는 달리 이 제품의 주사선 간격을 15인치 브라운관과 같은 0.39mm로 제조, 생산원가를 줄였다고 밝혔다.

광 커넥터 개발

한국단자

한국단자(대표 이창원)가 광커넥터를 개발하는 등 정보통신용 커넥터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 회사는 총 2억원을 투입,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광커넥터의 개발을 완료한 것을 비롯 앞으로 1~2년내에 미니어 처유닛(MU)형 광커넥터 및 가변광감쇄기를 개발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 커넥터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단자는 그동안 자동차부품용 커넥터와 전기전자부품용 커넥터를 생산해 왔는데 이같이 정보통신 관련 커넥터개발에 적극 나

서기로 한 것은 광통신망구축 등으로 앞으로 이 분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서이다.

이번에 개발한 광커넥터는 광섬유간의 접속에 사용하는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로 한국통신 데이콤과 계측기기업체에 납품을 시작했다.

또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내년 8월까지 개발할 MU형 광커넥터는 크기가 기존 광커넥터의 절반에 불과, 향후 광커넥터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98년까지 개발할 가변광감쇄기는 입사한 광의 강도를 일정량 감쇄시켜 출력시키는 부품으로 수광소자의 광강도를 최적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미국에 디지털 방식 위성수신기 수출 현대전자

현대전자는 미국 위성방송전문회사인 티콤사에 독자 개발한 디지털 위성방송용 셋톱박스(수신기) 100만대(4억달러 규모)를 공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미 현지법인인 HEA사와 티콤사가 전략적으로 제휴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티콤사는 83년 설립돼 미국 아날로그 위성방송수신기 시장의 18%를 점유한 최대 공급업체로 캐나다 남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등에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동영상 압축 및 해제의 세계 표준인 MPEG II 방식을 적용해 디지털 직접위성방송(DTH)서비스에 나선다.

직접위성방송서비스는 위성에서 각 가정으로 비디오 오디오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사업으로 미국에서는 티콤사를 비롯 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4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전자가 공급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기는 지난해 4월 지분·100%를 인수한 TV콤사가 개발한 것으로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하게 된다.